

2010년 8월 5일 칠레에 있는 한 광산이 매몰된 이후 지하 700m 어둠 속에 69일 동안 갇혔던 광부 33명 전원이 10월 13일 하나하나 구출되는 장면이 전세계로 생중계 되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기적’이라 말했고 생존자 중 하나는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했다 (Miracle in the Mine: One Man's Story of Strength and Survival in the Chilean Mines).

비슷한 사건이 2006년 초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도 있었는데, 탄광 폭발사고로 광부 13명이 지하 85m 아래 갇히게 되었고, 모두 생존했다는 보고와 함께 신문 방송은 앞을 다투어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기적’ 이야기를 보도했다(New York Times, 2006년 1월 4일). 그러나 처음 보고와는 달리 한 명을 제외한 12명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가족과 친지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기적과 같은 한 사람의 생존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건들은 비밀비재한데 왜 어떤 사건은 기적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부르길 꺼리나?

‘기적’이라는 표현/기록 속에는 어떤 특별한 경험과 사건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느님이 자신을 구했다는 의미로, 기적이라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와 함께 자긍심을 키우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긍정적 자세를 지닌다. 기적이라는 표현 이면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 사건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기적이란 어떤 의미로든 자연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바위가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데 악한 사람 위에는 떨어지고 선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멈춘다든지 그 행로를 바꾼다 하자. 이는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처사다. 신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보고, 신이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다. 우주의 법칙, 도(道)를 뿌리째 흔드는 일인데, 과연 마가복음이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

마가복음에는 소위 ‘기적 이야기’가 특별히 많다. 그 중 귀신축출이 대표적이며(1:21-28, 32, 34; 5:1-20), 열병(1:29-31), 문둥병(1:40-45), 중풍(2:1-12), 손 마름(3:1-6), 혈우병 여인과 죽은 소녀의 소생(5:21-43),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7:24-30), 귀머거리(9:14-29) 등과 같이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들이 연이어 나온다(1:34; 3:10). 소경이 눈뜨는 이야기도 두 차례 나온다(8:22-25; 10:46-52). 그 외 바람을 꾸짖고 물 위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 사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마르게 하는 사건 등 소위 ‘자연 기적’들이 줄을 잇는다. 혹자는 병 고침과 기적 이야기를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둘은 늘 맞물려 이어진다. 차이라면 단지 그 기적의 대상이 인간이냐 자연이냐에 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던지는 질문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이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병고침 이야기며, 자연현상을 초월하기에 기적이라 불린다. 그럴 때,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이(wonder worker)다. 모든 초점이 예수는 특별한, 예외적인 인물이라는데 모아진다. 문제는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던 그 예수가 지금은 부재(不在)한 이 세상에서 이런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일어난다면 예수의 희귀성이 문제시된다. 백번 양보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지속된다고 믿어도, 그런 기적은 좀처럼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난다손 쳐도 늘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의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 신을 인격적으로 이해한 결과다.

둘째, 예수의 기적과 병고침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를 은유적 상징적 해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예수가 행했던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적과 병고침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범적인 인물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道)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 있다. 여기에 우리들의 관심이 있다.

**상징으로서의 기적.** 예수가 행한 일(기적)이 정말 단지 병을 고친 것이라면, 그 선한 행실이 왜 지배체제를 불편하게 하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 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또한 예수가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는 지적은 또 무슨 의미인가? (막 6:5). 예수를 병 고치는 사람으로 볼 때, 권능(기적)을 행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는 점은 그의 한계를 폭로하는 셈이 되고, 분명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마가복음 1 장에 나오는 세 번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그 기적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자.

### 1. 귀신 축출 (1:21-28)

예수의 공생애 첫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것을 서술하는 과정에 드러난 저자의 문학적 구성, 표현이 심상치 않다.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회당으로 들어가고(εἰσελθὼν, 1:21) 회당으로부터 나오는데(ἐξελθόντες, 1:29) 이런 심리적, 의식적 거리감을 가지고 예수는 당시 지배체제와 마주친다. 그리고 회당을 나온 예수는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들어간다(ἦλθον, 1:29). 상징적으로 그들의 통제구역인 ‘그들의 회당’(1:39)을 나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셈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든다(ἐπισυνάγω, 1:33). 회당(συναγωγή)의 어원이 ‘함께 모으다/모이다’(συνάγω)라는 뜻임을 되새긴다면, 두 단어의 인접한 배치는 분명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표현이고 구성이다. 회당이 ‘그들’—곧 지배체제 아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예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회당(모임)을 형성한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말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처한 위치가 다름을 전제한 말이다. 더욱이 이런 대립적 관계가 적대감을 품은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를 없애려 왔느냐”(1:24).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소위 첫 번째 ‘기적 이야기’다. 앞 장에서 이미 귀신축출을 예수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다. 누구나 보고 기적이라고 말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사람들의 외침은 예수의 사역을 단적으로 증언한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할 때, 이것은 더러운 영을 의인화, 인격화하여 말한 것일 뿐 실상, 그 속의 더러운 생각, 정신, 이데올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귀신이랄기 보다는 ‘더러운 영’이라고 말해야 그 뜻이 보다 분명해진다. 개인 안에, 조직체 안에 자리한 나쁜 생각, 정신을 꾸짖는 것이다. 귀신축출, 병 고침을 이런 가르침이란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더러운 영(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를 굳이 다른 병 고침과 구분해서 생각할 점이 있다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다는 점이다. 예수를 가리켜 “하느님의 거룩한 자”(1:24)라고 한 것을 칭찬과 공경의 뜻으로 보기 어렵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전개되듯 더러운 영에 쌓인 사람들—예루살렘 통치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터이니 말이다. 다른 말로, 귀신들만이 예수의 참 정체를 알고 있다는 식의 ‘메시아 비밀’ 이론은 여기서 설득력을 잃는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이름(정체)을 말함으로써 그 이름 속에 상대를 담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 하느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은 논리다(출 3:14). 오히려 예수는 군대 귀신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그들을 통제하게 된다(막 5:9).

## 2. 시몬의 장모와 열병 (1:29-34)

앞의 귀신축출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라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은 첫 번째 ‘병 고침’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열병이 떠났다”(1:31)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더러운 영/귀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병을 의인화/인격화해서 설명한다. 병 고침을 귀신축출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 이유다.

강일상은 그의 책 『마가복음의 기적이야기』에서, 열병을 화병으로 보았다. 장모 입장에서 사위가 일없이 예수를 따라 다니는데 ‘열 받아’ 누웠다는 이해다. 재미있고, 그럴 법한 해석이다. 특히 여성의 슬프고 화나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만큼 열려있지 않은 사회에서, 여인들의 우울증은 종종 몸이 아픈 것으로 표현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여인의 ‘한(恨)’을 푸는 한풀이가 치료의 한 방법이 되곤 했다. 원인은 마음의 병이로되, 그 증상이 신체적 아픔으로 나타나는 병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발행한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열람』에서는 신체화장애(Somatization disorder)라고 부른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켰다는데 초점이 모인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일어나다/일으켜 세우다”(ἐγείρω)로 마가복음에만 19 번 쓰이며 특별히 부활과 관련이 있다(6:14, 16; 12:26; 16:6, 14). 후에 부활과 관련해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부활이란 인간구실을 못하다가 다시 일어섬을 뜻한다. 곧 문자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그런 의미에서 부활(復活)—것이라기 보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첫 번째 병 고침 사건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예수의 병 고침은 사람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상징적 행위가 된다.

## 3. 문둥병과 격리된 삶 (막 1:40-45)

문둥병자 이야기는 예수의 병 고침이 단순한 의료행위 이상임을 잘 보여준다. 이야기에서 문둥병자는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문화적 인식과 더불어, 이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레위기에서는 문둥병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게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명한다(레 13:45). 그리고 정결의식(ritual cleansing)을 통해 이 죄를 씻어야 하는데, 예수는 이런 이해—부정함과 전염—자체를 모두 배격한다.

여기에 “깨끗게 하다”(καθαρίζω)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의 배경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the priest shall pronounce him clean, 13:6, 13, 17, 23, 28, 34, 37). 그런데 제사장이 병자를 깨끗게 할 수는 없다. 이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단지 깨끗게 됨을 선포할 뿐이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다. 막 1:40 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개역한글)로 읽지만, 실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다(선포)하실 수 있나이다”로 읽어야 할 것이다. 같은 단어(καθαρίζω)가 막 7:19 에도 쓰였고 거기서는 “깨끗하다고 하셨다”로 번역한다. 동일한 단어요, 동일한 의미다.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말이다. 다만 제사장의 독점적인 역할을 예수가 넘보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저들에게 증거하라(εις μαρτύριον αὐτοῖς)인데,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마치 건강하게 됨을 재검사받으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찾아가 친절히 가르쳐 주는 행위다(개역, 공동번역).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표준새번역). 대상이 막연히 일반 사람들이 아닌, 제사장들을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제사장’을 복수형 ‘그들’과 함께 표현함으로써(1:44), 개인이 아닌 조직, 체제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표현 “저들에게 증거로 삼으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두 번 더 나오는데,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고(6:11), 회당에서 매질하는 권력자와 임금 앞에서 증언하는 몸부림이다(13:9). 지배체제의 일꾼인 ‘그들에게’ 하는 반항적인 몸짓이다.

이런 저항의 몸짓은 선택된 단어를 통해 그 의도가 보다 분명해 진다. 하나는 “엄히 경계하사”(ἐμβριμησάμενος, 1:43)라는 말로 문둥병으로 낙인 찍혀 돌아온 이를 엄히 다그치는 행위다. 조심하라고 격려한다기 보다는 꾸짖음의 의미를 담는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사람들이 여인을 “책망했다, 나무랐다”(ἐνεβριμῶντο, 14:5)고 표현한 바로 그 단어다. 또 하나는 “보내시며”(ἐκβάλλω, 1:43)라는 말로 강권해 내 보는 것을 뜻한다. 바로 앞에서 하느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낼 때(1:12) 썼던 표현이고, 또한 더러운 영을 내칠 때 썼던 표현이다(1:34, 39). 하느님의 영이 하는 일이다. 그 뜻에 거스려 행하는 모든 영혼, 기관, 체제를 내어쫓는 행위다. 이와 맞물려 “되돌아 가서”(ὑπάγω, 1:44)란 말 역시, 예수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이미 제사장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고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되돌아 가라.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이다.

메리 더글라스는 정결함과 위험(Purity and Danger)이란 위생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사회 체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간파했다. 부정함—정결치 못함—은 사회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그런 의미로 기존 체제에 ‘위험’으로 인식된다.

오물(dirt)이란... 잘못 배치된 물질(matter out of place)로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는데, 곧 잘 정돈된 관계와 그것에 위배되는 무엇이다. 오물이란 결코 독특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오물이 있는 곳에는 체제(system)가 있다. 오물이란 물질을 분류하고 체제적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나온 부산물이다. (『Purity and Danger』, 36)

이렇게 오물로 처리된, 제거의 대상을 “잘 정돈된 관계,” 곧 기존 체제로 다시 불러들이는 행위는 분명 “위험”한 행위다.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자를 다시 공동체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그 체제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기적, 병 고침은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수는 처음부터 지배체제의 눈 밖에 났다.

## 결론

우리는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그 표현, 기록 이면에 담긴 경험을 살펴야 하며, 그 경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뜻/의도에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글을 읽고 이해한다 함은 쓰여진 글을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 말로 다시 바꾸려는 노력도 포함한다. 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자적 이해의 맹점이다. 스펜은 “기적은 없다”고 말하고, 오강남은 “예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그런 기적은 없다,’ ‘그런 예수는 없다’고 한 뜻을 읽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란 그런 기적의 종교가 아니다. 기적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연계성을 확인함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길을 제시함인 종교(宗教, 으뜸 가르침)로 본 기독교의 참 모습이다. 기적 이야기는 시와 수필처럼 문학의 한

장르로 이해하면 좋다. 이를 문자적으로 취급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다룰 때—곧 기독교를 그런 기적의 종교로 이해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이야기가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생각해 보기

1. 다음은 위키백과에 실린 ‘기적’에 대한 이해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적(奇蹟)**은 일반적으로는 기지(既知)의 자연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이상(異常) 현상, 특히 신들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을 말한다. 예로부터 종교·전설 속에는 마술적·환상적인 기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는 오히려 이런 종류의 기적을 경계·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서》에 예수 자신이 행한, 또는 그에게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기적을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든가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 처리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기적은 해석되기에 따라, 즉 《성서(聖書)》의 저자가 어째서 이를 기록하고 또 그것에 의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를 탐구함으로써 적절한 취급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 중 어떤 것은 본래 비유(比喩)에서 변형(變形)되어 발전한 것이며, 또 어떤 것은 원시교회의 신앙적 요청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오늘날과 같은 기사(記事)로 형성된 것이다.

2. 나의 ‘기적 이야기’를 말해 보라.